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10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“그린수소부터 EV 밸류체인까지”... 현대차그룹,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 ('26.9.9, 매일경제)

- 현대자동차그룹은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과 아프리카의 산업화·교통 인프라 구축·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향서(LOI)를 체결함
- 양측은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·에너지·인프라 역량과 AfDB의 개발금융·투자유치 역량을 결합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임
- 협력 분야는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, 지속가능 모빌리티, 교통·물류 인프라, 전기차 밸류체인, 산업화, 인재 양성 등 6개 영역임
- 현대차그룹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통합금융패키지 구축도 논의해 대규모 에너지·인프라 사업의 실제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임

○ 수소배관망용 정압기 국산화 추진 ('26.9.8, 가스신문)
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배관망용 국산 정압기와 성능평가 시스템의 시작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
- 연구원은 수소의 물성·누설 특성·재료 적합성·안전 요구조건을 반영해 지역정압기 수준의 압력 조건을 모사하고, 시작품의 압력제어 성능·운전 안정성·누설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임
- 연구원은 8월 18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31일 입찰이 유찰돼 재공고했으며, 9월 14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

○ HMM, 브라질 광산업체와 4.7조 장기계약 ('26.9.9, 세계일보)

- HMM은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와 4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함
- 지난 6월 발주한 최대 21만t급 뉴캐슬맥스 벌크선 8척을 2030년부터 차례로 인도받아 투입하며, 선박별 운송기간은 투입 시점부터 25년임
- 신규 선박은 메탄올·에탄올·중유를 선택해 사용하는 3중 연료 추진 엔진을 장착하고, 향후 LNG 또는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됨

○ 막 오른 수소트럭 패권 전쟁, 글로벌 4파전 점입가경
(‘26.9.9, 월간수소경제)

-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유럽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와 북미 100만 마일 달성을 발표했으며, 브라질에서는 수소상용차·수소트램과 그린수소 생산 등 수소 신사업을 전개할 계획임
- 도요타는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의 일본·유럽·북미·중국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, 베이징의 연간 1만 대 규모 상용차용 연료전지 생산 라인에 이어 생산 역량을 확대할 방침임
- 다임러트럭은 키유와 협력해 최고출력 350kW·주행거리 약 650km의 수소엔진트럭을 2027년 말 출시하고, 액화수소 기반 GenH2 트럭은 실증을 거쳐 2030년대 대규모 양산으로 전환할 방침임
- 볼보트럭은 2030년 이전 수소엔진 상용화를 목표로 공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, 수소연료전지 트럭은 북유럽 고객사를 대상으로 총중량 65톤 이상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음

○ [2026 국감] 친환경선박 전환을 2030년 15%…글로벌 탄소규제 넘을 수 있나 ('26.9.9, 에너지데일리)

□ 해외

- [영국] 퓨얼셀시스템즈·하이홀 계약으로 영국 최대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('26.9.8, Fuel Cell Works)
 - 퓨얼셀시스템즈(FCS)는 프로티움 그룹의 하이홀 모빌리티와 영국 최대 규모의 고압 수소충전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, 하루 최대 30대의 대형 화물차 충전을 지원할 계획임
 - 충전소는 프로티움이 보유한 기존 그린수소 생산·유통 부지에 함께 설치해 상업용 수소트럭 운행에 필요한 수소 공급과 충전을 연계할 예정임
 - FCS는 하이플리트 충전기와 수소저장설비·가스패널·튜브트레일러 연결부를 포함한 대용량 충전시스템 한 세트의 설계·제작·시험·납품을 맡음
 - 설비는 350bar와 700bar 충전을 지원하며, 단일 차량군에 24시간 동안 최대 145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됨
 - 수소저장설비는 4개 बैं크로 구성하고 자동 बैं크 선택 기능을 적용해 대형차의 연속 고속 충전을 지원할 계획임
 - 양사는 2025년 7월 하이홀 프로그램의 충전 인프라 공급계약을 처음 체결했으며, 당초 M4 간선도로 구간의 충전소 4곳을 공공 지원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음
 - 당초 계획은 이노베이트 UK의 무공해 대형화물차·인프라 실증사업 지원을 받았으나, 공공 지원금 변경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전액 상업적 자금으로 추진하기로 함
 - 양사는 새 충전소의 최종 입지를 올해 말 이전에 발표할 예정임

○ [인도] L&T, 그린수소 수요 부진에 1GW 수전해 설비
생산능력 확대 연기 ('26.9.7, Fuel Cell Works)

- 익명을 요구한 인도 업계 관계자는 L&T가 예상보다 부진한 그린수소 수요로 구자라트주 하지라 공장의 수전해 설비 생산능력을 400MW에서 1GW로 늘리는 계획을 연기했다고 함
- L&T는 증설 연기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, 회사 측은 현재 조립라인과 로봇라인의 생산능력이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임
- L&T 에너지 그린테크의 완전자회사인 L&T 일렉트로라이저스는 2027년 3월까지 45억~55억 루피(약 635억~776억 원)를 투자해 하지라의 생산능력을 1GW로 확대할 계획이었음
- 현재 생산능력은 400MW이며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9억 3000만 루피(약 413억 원)임
- L&T 에너지 그린테크의 데릭 샤 최고경영자는 그린수소·그린암모니아·그린메탄올 시장이 열리고 사업 발표가 늘어나면 생산라인을 신속하게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함
- 샤 최고경영자는 인도 내수와 수출용으로 발표된 사업이 모두 실제로 추진될 경우 12~18개월 안에 생산능력을 1GW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함
- 또한 그린수소·그린암모니아 공장은 통상 완공까지 30~40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업계 수요에 맞춰 수전해 설비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함
- L&T 일렉트로라이저스는 프랑스 맥피 에너지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가압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를 생산하고 있음